

■ 2026 새해설계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 남해안권 이끌 관광도시 도약 끝까지 완성할 터”

문화·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집중…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관광소득 증대 프리미엄 특급호텔 유치·체육 인프라 개선 추진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잡은 순천의 2026년은 준비해 온 변화를 하나씩 완성해 가야 할 해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년사에서 “순천은 시대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하며 도시의 체질과 체급을 스스로 끌어올렸다”며 평가했다.

순천시는 남해안남중권의 중심도시로 올라서기 위해 미래산업인 우주, 문화, 그린바이오에 집중한다.

해룡·광양 미래첨단 국가산단(396만6942㎡·120만평)을 중심으로 사천의 항공우주, 고층의 발사 인프라,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주·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공장에서 누리호 6호기 조립이 시작되고, 순천의 첫 인공위성 ‘순천 SAT’이 함께 실려 올라간다.

도심에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완성해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운다.

승주 일대를 첨단 그린바이오 기지로 완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 생산·연구·실증·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이뤄지는 국가대표 바이오벨트 구축에 나선다.

남해안남중권을 이끄는 소비·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다.

광주·전남 최초로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만큼, 신대·연향 생활권 전체가 남해안권 최대의 소비와 유통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켜 관광 소득을 증대시킬 프리미엄 특급호텔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88올림픽 이후 40여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낡고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최첨단 미래형 시설로 확충할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통해 전지훈련의 메카 등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 중앙부처, 전남도와 함께 203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준비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순천만과 화포·와온해변을 잇는 ‘해양치유벨트’를 구축하고, 순천-보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는 육지의 국가정원과 바다의 국가해양정원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일한 도시로서 순천의 경쟁력이 된다.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생태자원을 통해 외부의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계적 치유도시의 새로운 톨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간·생활 인프라 재편도 추진된다. 순천의 관문 서면·삼산 일원에는 가칭 ‘북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도서관·문화시설·생활도로·주차장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연향 권역은 ‘주차는 지하로, 삶은 숲으로’란 원칙 아래 지하주차장과 녹지·문화공간을 결합한 공원 조성을, 왕지·조례 권역에는 5만 주민의 생활·문화·체육 수요를 아우르는 복합형 스포츠·문화 시설을 검토 중이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오천지구 학교용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권으로, 신대·선월 권역은 교육·소비·주거·일자리가 연결되는 미래형 복합타운의 밑그림을 그렸다.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금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2026년 본예산 1조5669억원을 투입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대학30과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을 통해 문화·우주·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인재를 키우고, 배움이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길을 완성한다.

긴급복지와 장애인 일자리로 취약계층이 자립으로 나아가게 하고, 2000억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과 특례보증·이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영농형 태양광과 공익수당·농어촌 협력사업으로 농어업을 새로운 소득 산업으로 성장시킨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걸맞은 돌봄과 건강,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점 경로당 조성 등을 통해 존중받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에서 순천의 미래에 대응 되는 일에는 이념과 정치노선과 관계없는 철저한 실용주의의 원칙을 내세우겠다”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 올라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추운 겨울 녹이는 ‘따뜻한 나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김중택 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장성읍과 함평면에 위치한 저소득 가구 5곳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연탄 1200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장성군

구례, 화염주차장 무료 개방

구례군은 1월부터 화염주차장을 무료 개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무료 개방은 구례군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조치로, 지리산국립공원의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염사 일대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특히 관광 시즌에는 주차공간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협력해 화염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구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화염주차장의 무료 개방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구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대학생 생활비 등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

복지·경제·문화·생활 등 6대 분야 54개 사업 추진

어르신 건강 안전 강화 등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0건), 청소년·청년·중장년(8건), 노인·복지(16건), 경제·문화·생활(12건), 농어촌(3건), 안전·환경(5건) 6대 분야 54개 사업이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 3월 개원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광양시 출생축하금(첫돌·네돌) 자동지급제를 시행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개선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결혼문화 개선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는 AI 기반 체험형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전남도 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어르신 건강을 보호하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시설 설치, 어르신 스포츠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밀착형 건강·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비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비문(葬紋) 등록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전기 안전진단을 추진해 농가 안전을 확보한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APP) 운영,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대여서비스 정책을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구성했다”며 “많은 시민이 적기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곡성, 옥과면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

70세대 공급·최장 16년까지 거주
월 임대료 1만원 주거 부담 완화

곡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옥과면 죽림리 일원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에 나선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제안한 공모사업이다.

곡성군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 모델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포함해 총 7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주자는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장 1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곡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옥과면 죽림리 일원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에 나선다.

사업 대상지인 옥과면 죽림리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인근에 있어 지속적인 일자리 기반이 형성돼 있다. 또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의료시설 등 주요 교육·생활 시설이 주변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육아와 교육,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군청에서 사무식 갖고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직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군민 신뢰받는 ‘청렴 장흥’ 다짐

전 직원 ‘청렴 서약’…반부패 시책 지속 추진

장흥군이 최근 군청에서 열린 사무식에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직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운영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직접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2014

년 이후 11년 만에 청렴도 중위권을 회복했다.

군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과 군민 신뢰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2025년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열매다”며 “군수부터 솔선수범해 청렴을 실천하고,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311@